

'94년 역사' 남평주조장 근대산업유산 재탄생

나주시, 종합정비계획 수립 세미나...보존·활용 논의 복합문화공간 조성 구상...국가유산 지정 신청도 추진

나주시가 94년 역사를 간직한 남평주조장(나주시 향토문화유산 제27호)의 체계적 복원과 관광 자원화를 위한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추진. 근대산업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본격화한다.

2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이화실에서 '나주 남평주조장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9월부터 추진 중인 '남평주조장 종합정비계획 용역'의 일

행으로 전문가와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실질적 보존과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932년 5월 15일 설립된 남평주조장은 일제강점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나주 지역의 술 빛은 문화를 대변해 온 상징적 공간이다.

국립민속박물관 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조장 가운데 가장 많은 역사 기록물이 남아 있으며, 건물 원형 또한 비교적 온전하

게 보존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두 가지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김중현 배재대 교수(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는 '지역이 살아있는 근대산업유산으로서 남평주조장'을 주제로 건축적 가치와 근대 산업사적 의미를 설명했으며, 이현종 목포대 교수(전남도 문화유산위원)는 '남평주조장의 보존·관리·활용 방안'을 통해 원형 보존과 지역 발전을 병행하는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을 제시했다.

나주시는 세미나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3월 종합정비계획을 마무리하고 단계적 복원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단순한 건물 복원을 넘어 방대한 역사 기록물을 전시하고 전통주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지역 경제와 연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또 종합정비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국가유산 지정 신청 등 남평주조장의 가치를 한층 격상하기 위한 후속 절차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남평주조장은 나주의 근현대사를 품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며 "철저한 고증을 통해 원형을 복원하고 남평의 역사, 자연 자원과 연계해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지역 대표 문화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1960년대 남평주조장 모습.

사진제공=나주시



광양시는 제3기 'G-관광마케터' 발대식을 기존 회의실이 아닌 관광 현장에서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사진제공=광양시

'문학과 관광이 어우러진 광양' G-관광마케터 본격 출범

시, 스토리텔링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

광양시는 제3기 'G-관광마케터' 발대식을 섬진강과 망덕포구 권역 일원 등 관광 현장에서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 중심의 형식적인 행사를 벗어나 관광마케터들이 주요 관광자원을 직접 체험하며 생생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관광마케터들은 망덕포구 내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족'에 집결해 활동

방향을 공유한 뒤 본격적인 현장 체험에 나섰다. 해당 구역은 국문학자 정병욱의 옛집이자 시인 윤동주의 유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보존된 역사적 공간이다.

이어 광양외국어 '섬진강별빛스카이' 체험을 위해 모노레일을 타고 출발 전망대로 이동한 뒤, 섬진강과 망덕포구를 조망하고 강을 가로지르는 짙어이를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진열 선소기념관을 방문해 지역 해양 역사와 선소의 의미를 살

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전시 해설을 통해 섬진강과 남해를 중심으로 형성된 광양의 해양 문화와 산업적 배경을 이해하며 관광 자원의 서사를 확장할 수 있는 콘텐츠 방향을 모색했다.

중식 간담회에서는 향후 활동 계획과 콘텐츠 방향을 공유하고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시는 현장에서 경험한 지역 음식과 스토리를 콘텐츠로 구체화해 광양 미식의 품격과 매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서울·경기·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참

여한 제3기 관광마케터 10명은 이번 현장 체험을 통해 관광 자원의 특성과 스토리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각자의 감각과 개성을 담은 콘텐츠로 구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발대식은 역사·문화·액티비티·미식을 아우르는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관광 자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완성도 높은 콘텐츠 제작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관광마케터 개인 SNS와 시 공식 채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광양 관광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ikjin@gwangnam.co.kr

장성 새벽팜 김치, 호주 시장 개척

올해 누적 수출 100만 달러 달성 목표

대한민국 대표 김치로 자리매김한 장성(주)새벽팜 김치가 호주 시장에 진출한다.

2일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장성 소재 농업회사법인 새벽팜이 본사에서 호주 수출 선적식을 개최했다.

새벽팜 김치는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김치품평회에서 배추김치 부문 대상에 올라 '맛있는 김치'로 입소문 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도 알타리김치로 대상을 수상해 크게 주목받았다.

2024년부터 미국, 캐나다 등에 '케이(K)-푸드'의 매력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번 선적식은 새벽팜 최초 호주 시장 진출을 자축하는 의미를 지녔다. 1만

5000달러 상당의 배추·보쌈·알타리·파김치 4종을 수출한다.

북미와 호주 시장 수출을 꾸준히 늘려 올해 안에 누적 수출 100만달러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김의병(주)새벽팜 대표는 "김치품평회 2관왕으로 인정받은 품질을 바탕으로 꾸준히 해외 시장을 개척해 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한중 군수는 "장성산 김치가 세계인의 식탁에 오르는 날을 기대해 본다"며 "케이(K)-푸드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장성=이병현 기자 lhb6699@gwangnam.co.kr

장흥 천관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2년 연속 선정

노벨문학도시 기반 강화...주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

장흥군 천관문학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에 지난해 이어 2026년에도 연속 선정됐다.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은 문학관·도서관·서점 등 문학 기반시설에 작가가 상주하며 창작 활동을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상주 작가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며 문학 향유 기회를 넓히는 역할을 맡는다.

천관문학관은 2025년 상주작가 프로그램으로 하늘모자 동화창작반, 꼬마그림책 작가 교실, 산중산중 천관문학 잔치 열네 등 다양한 문학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문학 저변 확대와 활성화에 성과를 거뒀다.

2026년 상주작가는 천관문학관에 상주

하며 5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작가와 함께하는 창작의 샘 - 문학 창작 워크숍, 문학기행 프로그램, 청소년 맞춤형 창작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참여자가 직접 창작하고 작가의 피드백을 받는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장남진 도서관, 전남도교육청 장흥도서관 등과 협력을 강화해 지역 문화 자원의 연계를 확대하고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 유일의 문학관인 천관문학관이 상주 작가 프로그램을 통해 문학 창작과 향유의 거점 공간 역할을 견고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311@

'튼튼한 디딤돌' 담양자활센터 신축 개관

자활사업 전용 공간 조성 안정적 일자리 기반 강화

담양 지역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자립을 뒷받침하는 '담양지역자활센터'가 문을 열었다.

2일 군에 따르면 최근 자활사업 전용 공간인 담양지역자활센터의 개관식을 개최했다.

개관식에는 담양군수를 비롯해 담양군 의회의장, 도·군의원, 수탁기관장,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와 자활근로 참여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센터의 개관을 함께 축하했다.

담양지역자활센터는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7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67명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 자격증 취득 지원을 통해 취·창업 역량을 높이고, 자산 형성 지원으로 안정적인 자립을 뒷받침하고 있다.

센터는 2003년 설립 이후 여러 곳에 분산된 공간에서 사업단을 운영해 왔으며, 2020년부터는 담양군 소유 건물을 무상 임대해 사용해 왔다.

이후 시설 노후로 근무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23년 한국자활복



담양군은 최근 자활사업 전용 공간인 담양지역자활센터의 개관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담양군

지개발원의 자활센터 신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상 2층 규모의 신축 건물을 조성하게 됐다.

신축 센터는 1층에 작업장과 휴게실, 세탁실을 배치하고, 2층에는 강당과 상담실, 직원 사무실을 마련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활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신축 자활센터에는 병행동행 사업단과 청소년취업지원단인 굿크린사업단이 입주해 운영 중이다.

센터 외부에서는 카페 정취어림과 세모 도시락 사업단인 유태의 도시락, 가전제품 부품을 조립하는 셋별이품사업단, 오래된 사무용 가구를 수선·재판매하는 생활용 사업단 등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활센터 개관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새로운 희망을 제공하고, 자립을 통해 주체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활 참여자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해남, 새봄 문화강좌로 '활력충전'

군립도서관, 오는 17일~6월 28일까지 운영

해남군은 봄이 시작되는 3월부터 군립도서관에서 봄학기 문화강좌를 시작, 수강생을 모집한다.

군은 이번 봄학기에 유아부터 성인, 어르신까지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총 38개 강좌, 49개 반을 운영한다.

교육·학습 15개 강좌와 취미·오락 23개 강좌로 구성했으며, 총 모집 정원은 606명이다.

생후 2~6개월 영아와 부모가 함께하는 베이비마사지 강좌에서부터 유아, 초등생 강좌,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외국어, 음악, 미술, 스포츠 등을 마련했다. 1강좌당 수강료는 3만원이며, 준비물이 필요한 강좌의 재료비는 별도다.

3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15주간 해남문화예술회관 내 문화의 집(군립도서관 2층)에서 강좌가 운영되며, 3월 4~11일 해남군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수강신청을 접수한다.

군 관계자는 "3월부터 시작하는 봄학기 문화강좌에 많은 군민들이 배움의 기쁨을 누리고 일상에서도 따뜻한 활력을 얻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봄학기 문화강좌에 대한 세부 강좌 목록, 강의계획서 등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립도서관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해남군립도서관 문화의 집(530-5896~7)으로 문의하면 된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